

사회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 줄속 시행

대학·학생·학부모 '우왕좌왕'

학교 아닌 장학재단서 대출 신청 접수

대학들, 교과부와 업무협조 안돼 '혼선'

지난 15일부터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신청이 일선 대학에 해당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침 없이 줄속으로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가 아닌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신청받겠다는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몰라 이를 문의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확정된 것이 없으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잘못된 내용을 안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장학 제도를 주도해 온 대학들과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신입생 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대학별로 하루 평균 50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대출 가

능 여부와 지급시기, 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지만 대학에선 해당 업무에 대한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문의전화가 왔지만, 교과부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지 못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면서 "임시방편으로 대학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15일부터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저소득층 지원 국가장학제도' 등의 긴급시행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안내 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시로 올리겠지만, 참고해 달라'는 내용을 게재해 놓고 있다.

광주의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장학금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도, 기본적인 안내문조차도 받지 못했다"며 "저소득층 지원 장학제도 등 교과부에서 시행 여부를 놓고 오

락가락하는 바람에 대학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학부모나 학생이 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지정 은행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재단과 학교가 협의해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일부 대학에선 이러한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광주의 모 대학 관계자는 "대학에서 장학재단에 학생 성적과 등록금 등 세부 사항을 등재해야만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위(교과부)에서 이 같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 같은 대학들의 업무 착오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대학측에 문의해 보니, 기다리라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언론에선 이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라며 혼란스러워 했다.

이와관련,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이 촉박해 발표 다음날 바로 신청을 받기 시작

했다"면서 "시간에 쫓기다보니 일선 학교에 세부 지침을 전달하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출 희망 신입생 신청은 오는 28일, 재학생 신청은 25일~3월 18일까지며, 대학이 아닌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 학자금 포털 사이트(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시모집 등록 5일 연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신입생들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시모집 등록기간을 대학입학전행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연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등록기간은 다음달 2~4일에서 2~9일로 바뀌게 됐다. 대교협은 정시 등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정시 미등록 총원 및 추가모집 일정을 각 대학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유치원 입학 신체검사

지난 1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사설 유치원에서 입학할 아동 어린이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유치원 면접은 신체검사와 색채, 색 구별하기 등 비롯한 기초능력 테스트, 면담 등으로 이뤄진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명 기소

병·의원에 대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뒷돈'을 건넨 제약사 대표 2명이 전격 기소됐다.

17일 보건복지부가주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대기업 계열 제약기업 A사와 중소제약사 B사의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약사 대표가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영업담당 임원이나 영업사원들이 대부분이었

기 때문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29일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전남·북 대형 병원 의사 10명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의사들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영업상 불가피한 관행'으로 간주해 인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지검이 제약사 대표를 기소함에 따라 향후 관련 당국의 리베이트 처리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

영광 축사 화재... 돼지 1천여마리 불타

17일 새벽 5시10분경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오모(63)씨의 조립식 패널(panel)로 지어진 돈사(豚舍)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시간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내부 1천650㎡에 돼지 1천100마리가 모두 불에 타 2억7천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

해를 냈다. 당시 오씨는 돈사에서 15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에 설치된 보온용 전등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나원침 (8007) 김장동



신안 앞바다 中 선원 실종

17일 오후 3시께 신안군 흥도 북서쪽 35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군산선적 98급 안경망 어선에서 중국인 선원 K(36)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 해경은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동료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필기자 wncho@

'즉석만남' 돈 훔친 못난 대학생들

○대학생 4명이 '즉석 만남'을 가진 여대생들의 돈을 몽땅 털어서 출렁랑쳤으나 자신들이 미리 건넨 연락차 때문에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술집에서 알게 된 여대생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현금을 몰래 훔친 광주 모 대학교 주모(19)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주군 등은 지난 16일 새벽 2시께 동구 금동모 소주방에서 이날 처음 만난 여대생 하모(19)양 등 3명과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양 등의 가방에 있던 현금 3만5천원을 꺼내간 혐의.

○주군 등은 경찰에서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는데 신고를 했다. 붙잡히더라도 죄가 되지않을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지자체 근로자 임금소송 잇단 승소

광주 동·남·북·광산구·나주시 161명

광주지법 '통상임금 3억8천 만원 지급'

광주·전남지역 5개 자치단체에 소속된 상용직 노조원과 환경미화원 등이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17일 이모(여·36)씨 등 광주 북·광산·동·남구와 나주시 소속 근로자 161명이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1인당 1만7천~1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용직 근로자(특수·기능·보통 직종)의 경우

시간의 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퇴직금도 이를 근거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여한 광주 북구청 근로자 58명을 비롯, 광산구 53명, 동구 20명, 남구 16명, 나주시 14명 등이 각각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통상임금은 기본급료는 물론,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들 소송 근로자 161명은 "근로기

준법상 적법하게 산정된 각종 수당과 차액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8년 12월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모두 3억 8천여만원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 2007년 상용직 2명이 "통상임금 산정으로 인한 3년치 체납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나모(48)씨 등 전·현직 환경미화원 29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모두 4억9천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한편 광주·전남 상용직노조는 도로보수·하수준설·환경미화·사무보조 등을 맡은 지자체 상용직 직원들이 가입해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가슴 성형수술 20대 女

호흡곤란 등 증세 사망

가슴 성형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던 A(27·여)씨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40분께 숨졌다.

수술을 한 의사는 "수면마취와 국소마취를 한 뒤 가슴절개 중 A씨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사인을 가리는 한편 A씨를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과실유무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A large advertisement for 'Nawonchim' (나원침)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person carrying a basket of goods,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